

뿌쉬킨 문학에 나타난 깔미크 공간

권 기 배
(충북대학교)

국문초록

이 논문은 몽고-동양의 상징인 깔미크 공간(깔미크 민족)이 러시아 문학, 특히 뿌쉬킨의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고찰하고 있다. 유럽-아시아(동양)적인 문제는 다양한 민족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아주 거대한 다민족의 나라인 러시아 내부에서도 시대를 초월하는 화두이다. 특히 몽고계의 피를 이어 받고 있는 소수민족과 그들이 살아가는 러시아이면서 비러시아적인 공간에 대한 관심은 많은 러시아 작가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었다. 특히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 등의 대도시 중심의 문학적 공간을 탈피하여 문학적 주변부 공간에 관심을 보였던 뿌쉬킨에게는 카프카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깔미크 공화국은 러시아내의 몽고-아시아의 상징적 공간의 문학적 재료로서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깔미크 대초원을 직접 방문하기도 한 뿌쉬킨은 자신의 평론, 소설, 시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몽고족의 후예인 깔미크를 러시아내의 동양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소수민족으로서 소개하고 있다. 물론 뿌쉬킨의 깔미크에 대한 회상은 단편적이고 일화적인 성격이 강해서 깔미크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동시대의 러시아인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깔미크의 존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뿌쉬킨은 자신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 — 『푸가초프의 역사』, 『대위의 딸』, 『1829년 아르즈룸보 행군 시기의 여행』, 시 “깔미크여인” — 에서 깔미크 민족을 2세기 이상 러시아 영토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문화, 생활방식, 전통적인 종교(샤머니즘과 불교)를 유지하는 민족으로서, 평화를 사랑하는 선한 민족으로서, 손

념을 맞는 것을 즐거워하는 소박하고 순진한 사람들로서, ‘야생적인 미’를 가진 자연친화적인 여인으로서 표현하고 있다.

주제어

칼미크, 뿌쉬킨, 공간, 동양, 러시아문학

I.

유럽과 아시아대륙에 각각 자신의 두발을 걸치고 있는 러시아의 공간은, 러시아 민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현실적 삶이 있는 단순한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문제를 넘어 러시아인의 민족적인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공간¹⁾이다.

러시아의 이러한 독특한 지형적-형이하학적인 요소는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언어를 통해 인간의 삶을 그려내고 있는 문학에 특별한

-
- 1) 시간과 공간은 인간 삶의 조건의 주요한 두 축이다. 이러한 인간의 삶을 모방하는 문학은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무대가 되는 시간과 공간을 언어를 통해 그려내는 언어의 공간이다. 특히 19세기부터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공간은 시간에 독특한 기능을 부여하여 단순한 배경을 넘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문학에 나타나는 문학 공간은 러시아 문학이 세계 문학의 주류로 자리매김한 19세기 이전부터 이미 이야기의 극적 효과 창출에 기여하면서 허구의 이야기를 진실의 세계에 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이후 19세기 도스토예프스키를 비롯한 러시아 문호들은 치밀하게 전개되는 작품의 구조 속에 나타나는 물리적 공간을 심리적으로 그릴 줄 아는 섬세함과 그 속에서 인간 본성의 문제를 끌어낼 수 있는 통찰력을 그들의 작품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학 공간의 기능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된다. 즉, 현실과 환상,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며 환상으로 가득 찬 도시들의 욕망에서, 인간의 일상생활들의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그림으로 복원하는 기억에서, 언어로 재현해내지 못하는 부재하는 것들의 현존함이 시각적으로 포착되는 연극이나 영화에서 그리고 우리의 웅숭깊은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현실 세계보다 더 나은 유토피아적 대안 세계를 찾는 가상의 세계에서 자신(공간)의 영역을 확장한다.

재능을 지니고 있는 이들에게 하얀색에 대한 황색의 색깔문제, 서구와 아시아의 문제 등 심리적-형이상학적인 문제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유럽-아시아적인 문제²⁾는 다양한 민족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아주 거대한 다민족의 나라인 러시아 내부에서도 시대를 초월하는 화두이다. 특히 몽고³⁾계의 피를 이어 받고 있는 소수민족과 그들이 살아가는 러시아이면서 비러시아적인 공간에 대한 관심은 많은 러시아 작가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었다. 특히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 등의 대도시 중심의 문학적 공간을 탈피하여 문학적 주변부 공간에 관심을 보였던 뿌쉬킨에게는 카프카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깔미크 공화국은 러시아내의 몽고-아시아의 상징적 공간의 문학적 재료로서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사실 뿌쉬킨은 직접 깔미크 대초원을 방문하기도 하였는데, 이 같은 사실은 티플리스(Тифлис)에 다녀온 시기에 씌어진 그의 수필 『1829년 아르즈룸보 행군 시기의 여행』(Путешествие в Арзрум во время похода 1829 года)에 언급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몽고-동양의 상징인 깔미크 공간(깔미크 민족)이 러시아 문학, 특히 뿌쉬킨의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고찰⁴⁾하고자 한다.

-
- 2) 유럽국가로서가 아니라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러시아의 정체성 규정에 대한 경향은 1880년대에 프랑스에서 탄생했다. 러시아 민족, 더 나아가 러시아 문화가 유럽과는 전혀 아무런 연관도 없고, 러시아의 자리는 아시아라고 생각한 첫 번째 사상가는 바로 프랑스 진보주의 역사학자이자 상언의원(상인)이었던 앙리 마르텐(Анри Мартен 1810-1885)이었다. 앙리 마르텐은 농민 해방과 황제의 민주적 개혁의 전야인 1865년에 자신의 책 『러시아와 유럽』(Россия и Европа)을 출간했다. 여기에서 그는 러시아인들은 슬라브족이 아니며, 그들은 인도-게르만족이 아니라, 우랄(터키)-알타이 민족에 속하는 투란족으로서 단지 외모만 유럽인과 흡사하지만 유럽인들과 러시아민족은 어떠한 공통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 3) 아시아(몽고)는 블록의 시에 들어 있다, 블록은 자신의 시에서 홀러간 시절에 대한 기억을 노래하고 있다:

За море Черное, за море Белое
 В черные ночи и в белые дни
 Дико глядится лицо онемелое,
 Очи татарские мечут огни
 (А.А. Блок의 시 «Русь моя, жизнь моя, вместе ль нам маяться...»(1910)를 재인용).

II.

1. 몽고-아시아로서의 깔미크

티플리스(Тифлис)에 다녀온 시기에 씌어진 뿌쉬킨의 수필 『1829년 아르즈룸보 행군 시기의 여행』(Путешествие в Арзрум во время похода 1829 года)에서 다른 러시아 도시를 거쳐 깔미크 공화국으로 들어갈 때 뿌쉬킨은 ‘유럽으로부터 아시아로의 이동’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유럽에서의 아시아의 이동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민감하게 다가온다. 숲들은 사라지고, 언덕들은 평평하고, 풀들은 무성하고 더욱더 많은 영토를 잠식하고 있다. 우리 숲에서는 볼 수 없는 새들이 보이고; 큰 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로의 돌출부위에 독수리들이, 마치 보초병처럼 앉아 있고 여행자를 오만하게 바라보고 있다 <...> 깔미크인들은 기차역 근처에 있다. 몽골식 천막주위에는 오를로프스키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못생기고 털이 무성한 말들이 풀을 뜯고 있다.

Переход от Европы к Азии делается час от часу чувствительнее: леса исчезают, холмы сглаживаются, трава густеет и являет большую силу растительности; показываются прицы, неведомые в наших лесах; орлы сидят на кочках, означающих большую дорогу, как будто на страже, и гордо смотрят на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а. <...> Калмыки располагаются около станционных хат. У кибиток их пасутся уродливые, косматые кони, знакомые вам по прекрасным рисункам Орловского.⁵⁾

4) 러시아 문학에서 기억되고 있는 깔미크(공간)에 대해서 고찰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러시아 문학의 그 어느 작가도 — 뿌쉬킨을 포함해서 — 자신의 작품에서 이 민족의 삶이 이어져온 공간과 이 민족에 대한 역사, 전통 등을 독자들에게 완전하게 전달해주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작가들(뿌쉬킨을 포함해서)이 작품에서 회상/기억하고 있는 깔미크는 단지 작가들의 그 민족에 대한 가벼운 단편(단편)일 뿐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연구가 사방이 벽에 둘러 싸여 있는 캄캄한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출구를 찾아다니는 것 같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칼미크 공간을 몽고-아시아로 표현한 예는 또 있다. 다시 한 번 뿌쉬킨의 작품 속에 나타나고 있는 칼미크에 대한 작가의 기억을 따라가 보자. 뿌쉬킨의 시 <Памятник>의 한 연을 보자,

나에 대한 소문이 위대한 러시아 전역에 퍼질 것이고,
 슬라브의 영광스러운 손자도, 그리고 핀란드인도, 그리고 현재의
 야생적인 퉁구스도, 그리고 스텝의 친구인 칼미크인도
 러시아 모든 곳에 존재하는 언어로 나를 부를 것이다,
 Слух обо мне прой дет по всей Руси великой ,
 И назовет меня всяк сущий в ней язык,
 И гордый внук славян, и финн, и ныне дикий
 Тунгус, и друг степей калмык⁶⁾

이 연에서 시인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민족들은 우연히 인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이 연에서 표현되고 있는 네 민족의 명칭들에는 아주 광활한 러시아의 모든 영토가 포함되어져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슬라브 민족은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백러시아인을 대표하고, 핀종족(финн)은 북쪽 민족을, 퉁구스(Тунгус)는 시베리아 민족을, 칼미크(калмык)는 남부 및 남동부 민족인 몽고-터키민족(монголо-тюрский)을 각각 대표한다,

2. 『푸가초프의 역사』(История Пугачева)에서의 칼미크

위에서 인용한 뿌쉬킨의 시에서 나오는 종족(민족)의 명칭의 선택은 민속학 분야에서 뿌쉬킨의 박식함을 드러내고 있다. 뿌쉬킨은 칼미크의 역사를 『푸가초프의 역사』(История Пугачева)의 주석서를 쓴 비추린(Н.Я. Бичурин)⁷⁾

5) Пушкин А. С.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10-ти томах, т. 6, Л., 1978, с. 435.
 6) Пушкин А. С.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10-ти томах, том 3, с. 340.
 7) 비추린(1777-1853)은 러시아의 유명한 중국학자로 중국주재 러시아공사관의 책임자로 일했다.

의 고문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었다. ‘뿌쉬킨 시대’의 러시아내의 중국학에 대한 거대한 지식층위는 동양에 대한 그 지식의 방대함으로 특징되어지는 비추린의 연구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뿌쉬킨과 가까운 사이였던 비추린은 자신의 책을 시인에게 선물하였다. 왜냐하면 뿌쉬킨의 노력에 의해서 비추린의 뛰어난 논문집들이 발간되었기 때문이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15세기부터 현대까지의 오이라트 또는 칼미크의 역사적 평론』(Историческое обозрение ойратов или калмыков с XV столетия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이다. 중국의 자료와 러시아 여행가-학자들인 네페데프(Нефедьев, П.И.), 르츠크프(Рычков, С.В.), 리쎬프체프(Липовцев, И.К.)들이 수집한 다양한 자료들의 기초위에서 쓰인 『15세기부터 현대까지의 오이라트 또는 칼미크의 역사적 평론』을 통해서 비추린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칼미크인들의 역사적인 운명을 러시아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이 평론은 1834년에 출간되었다.

『15세기부터 현대까지의 오이라트 또는 칼미크의 역사적 평론』에 따르면, 1771년 칼미크인들이 러시아로부터의 대규모의 탈주(이주)가 있었다. 칼미크인들은 지도자 우부슈의 지도하에 불가강유역의 정착지를 버리고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러시아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한 칼미크인들의 광범위한 까자크의 초원을 통한 귀환의 길은 엄청난 고통을 그들에게 안겨 주었다. 탈주 1년 동안 칼미크인들은 100,000명의 동포를 잃었고 아주 적은 극소만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뿌쉬킨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무엇이 칼미크인들이 자신들의 영토로 돌아간 그 역사적인 사건에 뿌쉬킨은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을까?

바라빠예바(Варапаева В. А.)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야이크강(우랄강의 옛 이름) 까자크인들의 폭동에 대한 원인’에 대한 시인의 관심처럼 — 까자크인의 난에서 푸가초프 난에 대한 서막을 보았던 — 이 칼미크인들의 역사적인 사건을 뿌쉬킨은 처음에는 까자크에 대한 관심의 연장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 사건은 뿌쉬킨의 눈에 명백히 독자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깊게 사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푸가초프난의 역사에 대한 주석에서 시인은 칼미크와 관련된 동양학

학자의 유사한 내용을 언급할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동양학 전문가가 바로 비추린(Никита Яковлевич Бичурин)이었다.

우리가 만일 주의 깊게 뿌쉬킨 작품의 문장들을 읽어본다면, 깔미크인들에 대한 기억의 부분에서 시인은 《평화로운》(мирные)유목민들, 《온순하고 선한 민족》(смирном и добром народе), 《백제(白帝: 이민족이 러시아 황제에 붙인 존칭)의 보호 아래》(под покровительство белого царя)처럼 그 당시 중국에서 왔던 사람들을 대했던 것처럼 깔미크인들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뿌쉬킨은 그들의 탈주(폭동)의 원인이 황제의 관리들의 무자비한 전제정치가 직접적인 결과였다고 『푸가초프의 역사』(История Пугачев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러시아 관리관들이 그들의 단순함과 중앙통치부로부터 멀리 있다는 점을 이용하면서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했다. 온순하고 선한 민족의 억울함은 고위 정치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된 그들은 러시아를 떠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Русские приставы, пользуясь их простотой и отдаленностью от средоточия правления, начали их угнетать. Жалобы сего смирного и доброго народа не доходили до высшего начальства: выведенные из терпения, они решились оставить Россию...⁸⁾

분명히 시인이 민족 억압 정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같이 ‘푸가초프 난’에서 서막을 본 후에 까자끄인들과 끼르키즈인들과 충돌한 깔미크인들에 대한 사건에 대해 세밀하게 연구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푸가초프 봉기를 내용으로 하는 대역사적인 묘사 속에서 시인에 의해 되살아난 이 사건은 뿌쉬킨 시기에 일반화된 의미 — 민족적인 봉기는 역사적으로 필연적이고 합법적인 공정한 일이었다는 — 를 가져왔다.

8) Пушкин А. С.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10-ти томах, т. 8, с. 114.

3. 『대위의 딸』(Капитанская дочка)에서의 깔미크

알려진 바와 같이 푸가초프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의해서 일어난 농민 전쟁(1773-1775)에 대해 뿌쉬킨은 자신의 유명한 중편소설 『대위의 딸』(Капитанская дочка)에서 언급하고 있다. 지형학적인 측면에서 푸가초프의 공격의 진로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사는 농민과 국민의 명칭에 의해서도 판단해 볼 수 있다. 『대위의 딸』에서 폭도들과 함께 진격했고 충실히 봉직했던 까자크인, 바쉬끼르인등의 민족들이 언급된다. 백위군 요새 부대에서 근무하며(까자크군의 하사) 러시아 수비대에 복종한 ‘올라이’ 라는 깔미크인에 대한 언급도 있다. 뿌쉬킨은 올라이는 기독교인 깔미크인이었다고 적고 있다. 깔미크인들이 러시아 영토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 깔미크인들의 일부가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때로는 러시아 사제들이 강압적으로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종교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인들은 이민족에게 어떠한 영향도 가져다주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샤머니즘과 함께 불교가 깔미크인들에게 매우 강하게 전파되었기 때문이었다.

뿌쉬킨은 올라이를 영리하고 - 부대에서 까자크군의 하사로서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했다는 이유에서 - 언어에 매우 통달한 자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그가 바쉬끼르인 노인을 심문할 때 러시아어에서 따따르어로 통역하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즉 깔미크인 올라이는 최소한 3개의 언어, 깔미크어, 러시아어, 따따르어를 말한다는 것이다.

늙은 바쉬끼르인은 입을 열지 않은 채 아무 생각도 없는 표정으로 사령관을 바라보았다.

—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이반 꾸즈미치가 다그쳤다.

— 러시아 말을 전혀 할 줄 모른다는 거야? 이봐, 올라이, 저놈에게 자네 방식으로 물어봐, 우리 요새로 대체 투가 저 놈을 보냈는지?

올라이는 따따르 언어로 이반 꾸즈미치의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 보았다.

Старый башкирец молчал и глядел на коменданта с видом совершенного бессмыслия. «Что же ты молчишь? — продолжал Иван Кузмич, — али бельмес по-русски не размеешь? Юлай,

спроси-ка у него по вашему, кто его подослал в нашу крепость?» Юлай повторил на татарском языке вопрос Ивана Кузмина.⁹⁾

시인의 가슴에 깔미크인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흐르는 『푸가초프의 역사』에서와 같이 『대위의 딸』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볼 수 있다. 『대위의 딸』 제7장 《진격》(Приступ)에서 러시아군대의 반역자들이 깔미크인 올라이의 목을 베고는 러시아 병사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잘려진 머리를 수비대로 던져버린다. 이에 대하여 뿌쉬킨은 다음과 같이 상황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부대를 배신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깔미크인의 최후를 소설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네 명의 사내가 무리에서 빠져나와 전속력으로 요새 바로 밑에까지 말을 몰아왔다. 우리는 그들 중에서 우리 쪽 변절자들을 알아보았다. 그중 한 녀석이 종잇장을 모자위로 들어보였다. 다른 놈이 창으로 올라이 머리를 찔렀다. 가볍게 재빨리 털어버리고 나서 그는 울타리너머 우리에게 넘따 던졌다. 가엾은 깔미크인의 머리는 사령관의 발아래로 떨어졌다.

Четыре человека отделились и во весь опор подскакали под самую крепость. Мы в них узнали своих изменников. Один из них держал под шапкою лист бумаги; другого на копье воткнута была голова Юлая, которую, стряхнув, перекинул он к нам чрез частокол. Голова бедного калмыка упала к ногам коменданта¹⁰⁾

『대위의 딸』을 읽으면서 푸가초프의 폭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깔미크인 민화(民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푸가초프와 그리뇨프가 함께 요새로 갈 때, 푸가초프에 의해서 독자들에게 전해지는 깔미크 민화

9) Пушкин А. С.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10-ти томах, т. 6, с. 299.

10) Там же, с. 306.

는 『대위의 딸』 제 11장 《반란촌》(Мятежная слобода)에 나와 있다. 민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들어보게, — 푸가초프는 어떤 거친 숨을 쉬면서 말했다.

— 어렸을 때 깔미크 노파가 해주었던 이야기를 너에게 이야기 해주겠네. 어느날 독수리가 까마귀에게 물었다네. “까마귀 자네는 이 세상에서 3백년이나 사는데 나는 왜 기껏 해봐야 30년밖에 못 사는가?” 까마귀가 독수리에게 대답을 했네. “그것은 바로 당신은 살아있는 피를 마시는데 나는 죽은것을 먹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까마귀가 먹는 똑같은 것을 먹어야지 하고 생각을 했네. 그래서 까마귀와 독수리는 날기 시작하여 죽은 말을 발견하고는 아래로 내려와서 앉았지. 그리고 까마귀는 말고기를 아주 기분 좋게 쪼아 먹었는데, 독수리는 한번 쪼고, 다시 한번 쪼아보다가 날개를 저으며 까마귀에게 말했지. “어이 까마귀 친구, 나는 안되겠네, 3백년 동안 썩은 고기를 먹느니 한번이라도 신선한 피를 마시는 것이 더 낫겠네. 그 다음일은 하늘에 맡겨야지” 이 깔미크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Слушай, — сказал Пугачев с каким-то диким вдохновением.

— Расскажу тебе сказку, которую в ребячестве мне рассказывала старая калмычка. Однажды орел спрашивал у ворона: скажи, ворон-птица, отчего живешь ты на белом свете триста лет, а я всего-на-все только тридцать три года? — Оттого, батюшка, отвечал ему ворон, что ты пьешь живую ровь, а я питаюсь мертвечиной. Орел подумал: давай попробуем и мы питаться тем же. Хорошо. Полетели орел да ворон. Вот завидели палую лошадь; спустились и сели. Ворон стал клевать да похваливать. Орел клюнул раз, клюнул другой, махнул крылом и сказал ворону: нет, брат ворон; чем триста лет питаться падалью, лучше раз напиться живой кровью, а там что бог даст! — Какова калмыцкая сказка?¹¹⁾

11) Там же, с. 299.

위에서 인용한 칼미크 민화(民話)는 동물의 시체를 먹으며 300년간 사는 까마귀¹²⁾와 30년간 세상에 살면서 신선한 고기만을 먹는 독수리에 대한 것이다. 독자는 즉시 삶의 다양한 방법에 대한 전설이 보다 더 넓은 의미들, 즉 반란적인 자유의 미화, 모든 침체된 것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³⁾

이 민화가 인용될 때 거칠고, 강인하고 대담한 푸가초프의 형상은 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민화는 철학적인 문맥에서 흥미가 있다. 사실 그 속의 의지, 자유, 훌륭한 것에 대한 목표가 반영되어 있다. 아마도 그리노프는 귀족이었기 때문에 이 민화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삶의 형상 및, 세계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이러한 점에서도 또다시 상반되는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이다》(Эта сказка интересна в философском контексте. Ведь в ней отражено стремление к воле, свободе, прекрасному. Вероятно, Гринев не смог понять значение сказки, так как был дворянином. И такой образ жизни, мир вполне устраивали. И в этом опять есть противопоставление двух миров)¹⁴⁾ 이것은 바로 이 소설의 두 주인공의 사회적인 지위가 완전히 다른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소설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 흥미있군요, —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 그런데 살인과 약탈로 사는 것은 죽은 것을 먹고 사는 것과 같은 것인 것 같군요.

푸가초프는 놀라서 나를 쳐다보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둘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서 입을 다물었다. 따따르인은 서글픈 노래

12) “문학 작품과 영화에서 까마귀는 일반적으로 죽음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원인은 까마귀의 외모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술한 ‘까마귀와 독수리’의 스카스 까의 내용처럼 시체만 먹을 뿐 생물을 먹지 않는 까마귀의 습관 때문이다. 따라서 하늘을 천천히 활공하는 까마귀는 흡사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홍기순. 『뿌쉬킨 작품의 영상화 연구』. 『노어노문학』. 19권 1호. 2007. p. 397).

13) Храпченко М. Б.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творчество, дей ствительнос ть, человек. М., 1976, с. 81 – 83.

14) <http://www.goldref.ru/soch/works/177314889032.htm> "Прием антитезы в одном из произведений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XIX века"

를 부르기 시작했다»

— Затеяй лива, — отвечал я ему. — Но жить убий ством и разбоем значит по мне клевать мертвечину.

Пугачев посмотрел на меня с удивлением и ничего не отвечал. Оба мы замолчали, погружаясь каждый в свои размышления. Татарин затынул унылую песню.¹⁵⁾

뿌쉬킨은 깔미크 대초원들에 방문 했을 때 이 민화를 적어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¹⁶⁾. 민족적인 현명함은 대시인이 어떠한 설명 없이 말해주어도 충분히 깊고 이해가 되는 것이다. 낯선 영토에서 사는 깔미크인들에게 있어 자유와 독립 이념은 항상 첫 번째 과제였으며 결코 사라질 수 없는 문제였다. 뿌쉬킨은 깔미크인들과 같은 작은 소수민족의 형상을 1773-1775년 농민 전쟁 운명과 한 실타래로 엮어서 보여준 첫 번째 역사가라고 할 수 있다.

4. 뿌쉬킨의 기억속의 깔미크인

이미 위에서 언급했듯이 뿌쉬킨은 깔미크인들에 대해서 비추린(Н. Я. Бичурин)의 책과 평론에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직접 깔미크 대초원을 방문 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이것에 대해 「1829년 아르즈룸보 행군 시기의 여행」(Путешествие в Арзрум во время похода 1829 года)¹⁷⁾

15) Пушкин А. С.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10-ти томах, с. 299.

16) 홍기순은 뿌쉬킨의 원작 소설 『대위의 딸』과 역사적 작품인 『푸가초프의 역사』를 골격으로 제작된 두편의 영화 <대위의 딸>(1959)과 <러시아폭동>(2000)을 비교 분석한 자신의 논문 <뿌쉬킨 작품의 영상화 연구>에서 이 깔미크 민화를 뿌쉬킨의 창작물로 보고 있다: «‘독수리와 까마귀’에 관한 깔미크 스키타는 그리노프와 푸가초프 사이의 이념적 충돌의 절정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스키타는 뿌쉬킨 자신이 창작한 것이다». (홍기순, 『뿌쉬킨 작품의 영상화 연구』, 395)

17) “1827년에서 1828년 사이에 뿌쉬킨에게 대해서 정치적인 조사가 진행되면서 지금 전투를 수행하는 카프카즈 군대로의 여행은 카프카즈지역에 그와 가까운 데카브리스트 당원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1829년 뿌쉬킨은 금지를 무릅쓰고 아르즈룸보로 행군하는 러시아 군대를 따라다녔다.” (В 1827-28 против Пушкина возбуждаются политические преследования, ему отказывают в поездке на Кавказ в действующую армию, в виду того, что

에서 작가는 한 칼미크 가족과의 만남과 손님으로서 대접을 받은 것에 대한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이 부분을 통해 독자는 칼미크인들이 호의적이고 손님을 맞는 것을 즐거워하는 소박하고 순진한 사람들로 이해 할 수 있다.

며칠 동안 나는 칼미크 유목인 천막을 방문 했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아침을 먹기 위해서 모였다. 큰 솥은 중간에서 끓고 있었고 연기는 천막 위에 만들어진 구멍으로 배출되고 있었다.

На днях посетил я калмыцкую кибитку. Всё семейство собиралось завтракать. Котел варился посредине, и дым выходил в отверстие, сделанное вверху кибитки. 18)

모든 몽골 민족들에게 나타나는 것과 같이 칼미크인들에게도 매우 좋은 풍습이 있다. 그것은 바로 먼 길 가는 나그네를 따뜻하게 해주고 음식을 대접해주는 것이다. 심지어 만일 그들이 적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것은 또한 칼미크인들의 고상하고 넓은 영혼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 칼미크인들은 무엇을 먹었을까? 만일 주업이 축산업이었다면, 주된 음식은 고기와 우유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기서 뿌쉬킨은 틀림없이 모든 독자가 관심을 가질 칼미크 음식을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커피렛에 양 지방과 소금을 넣은 차를 끓여 만들었다. 그것을 그릇에 담아 나에게 주었다. 나는 거절하고 싶지 않았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려 애

там были некоторые из декабристов - его близкие знакомые. В 1829 году Пушкин, вопреки запрету, сопровождает русскую армию в Арзрум) (Краткая литератур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Москва, 1971, с.98). 여행 기간 동안 뿌쉬킨은 이 여행 수필의 근간이 되는 귀중한 메모를 항상 가지고 다녔다. 『1829년 아르즈룸보 행군 시기의 여행』은 아마도 1835년경에 쓰였고, 1836년에 <동시대인>지에 발표되었다.

18) Пушкин А. С.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10-ти томах, т. 6, с. 436.

쓰면서 맛보았다. 다른 민족 음식이 어떠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나는 무엇인가 입가심으로 먹을 것을 부탁했다. 그들은 나에게 말린 암말 고기 조각을 주었다. 나는 매우 기뻐다.

"В котле варился чай с бараньим жиром и солью. Она предложила мне свой ковшик. Я не хотел отказаться и хлебнул, стараясь не перевести духа. Не думаю, чтобы другая народная кухня могла произвести что-нибудь гаже. Я попросил чем-нибудь это заесть. Мне дали кусочек сушеной кобылятины; я был и тому рад."¹⁹⁾

비록 깔미크인들이 약 2세기동안 이미 러시아 영토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뿌쉬킨이 서술한 바와 같이 완전히 자신들의 생활양식을 바꿀 수 없었고, 자신들의 전통을 바꾸지 않았다. 땅을 개간하고, 전답을 갈고, 채소와 야채들을 재배하는 이 모든 것은 이 대초원의 민족에게는 아직까지 낯선 것이었다.

깔미크 여인과의 대화는 깔미크인들이 아직까지 불완전하게 구사하지만 그들의 러시아어 지식 정도를 보여준다. 천막의 여주인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접을 그에게 했지만 시인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다.

수터분한 외모를 가진 젊은 깔미크 여인은 담배를 피우면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너의 이름은 뭐니”, “***”, “몇 살이니?” “열과 여덟”, “무엇을 짜고 있니?”, “바지”, “누구에게?”, “나를 위한 거야”. 그녀는 나에게 담배파이프를 주었고 아침밥을 먹기 시작했다 <...> 깔미크의 애교가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빨리 천막에서 나와서 스텝의 짜르췌이로부터 벗어났다.

Молодая калмычка, собою очень недурная, шила, курия табак. Я сел подле нее. «Как тебя зовут?» — ***. — «Сколько тебе лет?» — «Десять и восемь». — «Что ты шьешь?» — «Портка». — «Кому?» — «Себя». — Она

19) Там же.

подала мне свою трубу и стала завтракать. <...> Калмыцкое кокетство испугало меня; я поскорее выбрался из кибитки и поехал от степной Цирцеи. 20)

뿌쉬킨은 매력적으로 맘껏 애교를 부릴 줄 알았던 프랑스 여자, 영국 여자와 완전히 다른 여주인에게 실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녀는 재봉일도 하고 파이프 담배도 피우며 자신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 살림을 하는데 할애하는 평범한 깔미크 여인이다. 그 당시 대부분의 깔미크 여인들은 치아에 대한 질병과 다른 잇몸 발병을 방지하기 위한 깔미크만의 민족적인 방식으로서 파이프 담배와 씹는담배를 피웠다고 한다. 깔미크 여인은 시인에게 호감적이지는 않았음에도 이 만남은 시인의 마음에 어떠한 흔적을 남겼다. 이 기억은 뿌쉬킨의 시 “깔미크여인”(Калмычке)에서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녕! 친절한 깔미크 여인이여!
 손님을 칭찬하는 전통이
 당신의 몽골 천막을 따라
 펼쳐져 있는 스텝에
 생각 보다는 나의 관심이 없구나!
 당신의 눈은 물론 동양적이고,
 코도 평평하고, 이마도 넓고,
 당신은 프랑스어로 애교를 떨지도,
 당신은 비단으로 다리를 감싸지도 않구려;
 빵을 잘게 썰지도 않고
 차를 마실 때 영어로 말하지 않구나
 센마르를 경외하지 않고,
 셰익스피어를 약간 존경하고,
 공상에 잠기지도 않구나,
 머리에 이상(理想)이 없을 때

20) Пушкин А. С.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10-ти томах, т. 6, с. 436.

Ma dov'è를 부르지도,
회합에서도 즐겁게 놀지도 앓구나....
무엇이 더 필요하지? 나에게 말을 준비하는,
정확하게 30분 동안
당신의 시선과 야생적인 아름다움이
나의 이성과 가슴을 매혹하는 구나.
친구들이여! 화려한 연회장에서도,
초현대식의 극장에서도,
아니면 옮겨 다니는 몽골의 천막에서도 ,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Прощай , любезная калмычка!
Чуть-чуть, на зло моих затей ,
Меня похвальная привычка
Не увлекла среди степей
Вслед за кибиткою твоей .
Твои глаза конечно узки,
И плосок нос, и лоб широк,
Ты не лепечешь по-французски,
Ты шелком не сжимаешь ног;
По-английски пред самоваром
Узором хлеба не крошишь,
Не восхищаешься Сен-Маром,
Слегка Шекспира не ценишь,
Не погружаешься в мечтанье,
Когда нет мысли в голове,
Не распевашь: Ma dov'è,
Галоп не прыгаешь в собрание...
Что нужды!? - Ровно полчаса,
Пока коней мне запрягали,
Мне ум и сердце занимали

Твой взор и дикая краса.
 Друзья! не всё ль одно и то же:
 Забыться праздною душой
 В блестящей зале, в модной ложе,
 Или в кибитке кочевой ?
 (<Калмычке>)²¹⁾

이 시에서 뿌쉬킨은 거칠고 야생마 같은 깔미크 미인을 유럽의 멋쟁이
 아가씨들과 비교하면서 그녀의 무지(‘셴마르를 경외하지 않고, 셰익스피어를
 약간 존경하고’)와 그녀에게 낭만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공상에 잠기지도
 않는다’)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유명한 문학가 알렉세예프(М. П. Алексеев)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시에서 셰익스피어에 대한 기억은 “대초원 가운데 있는
 깔미크 미인의 삶의 자유스런 형상은 수도의 대표적인 현대 사회계층의 유희
 양식의 전통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사회 관례들과 대조되는 이상적이지 않는 비교의
 일례에 속하는 것이다.” (входит в ряд отрицательных сравнений ,
 противопоставляющих вольный образ жизни среди степей
 калмыцкой красавицы традиционным и скованным условностями
 моды развлечениям столич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 светской
 среды.)²²⁾ 시인은 깔미크 여인의 자연적인 무지는 가장 위대한 영국 시인에
 아무 생각 없이 열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깔미크 여인의
 ‘야생적인 미’를 평가하고 있다.

III.

지금까지 몽고-동양의 상징인 깔미크 공간(깔미크 민족)이 러시아 문학, 특

21) Пушкин А. С.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10-ти томах, т. 3,
 с. 112.

22) Алексеев М. П. Пушкин, Л., 1972, с. 272.

히 뿌쉬킨의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유럽-아시아(동양)적인 문제는 다양한 소수 민족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과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다민족의 나라인 러시아 내부에서도 많은 연구가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특히 러시아의 역사에 자주 등장하는 몽고의 피를 이어 받은 몽고계의 소수민족과 그들의 삶의 영역은 많은 러시아 작가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었다. 특히 카프카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칼미크 공화국은 러시아내의 몽고-아시아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러시아 대문호 뿌쉬킨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칼미크 대초원을 직접 방문하기도 한 뿌쉬킨은 자신의 평론, 소설, 시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몽고족의 후예인 칼미크를 러시아내의 동양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소수민족으로서 소개하고 있다. 물론 뿌쉬킨의 칼미크에 대한 회상은 단편적이고 일화적인 성격이 강해서 칼미크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동시대의 러시아인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칼미크의 존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뿌쉬킨은 자신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푸가초프의 역사』, 『대위의 딸』, 『1829년 아르즈룸보 행군 시기의 여행』, 시 “칼미크여인”—에서 칼미크 민족을 2세기 이상 러시아 영토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문화, 생활방식, 전통적인 종교(샤머니즘과 불교)를 유지하는 민족으로서, 평화를 사랑하는 선한 민족으로서, 손님을 맞는 것을 즐거워하는 소박하고 순진한 사람들로써, ‘야생적인 미’를 가진 자연친화적인 여인으로서 표현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Пушкин А. С.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10-ти томах, т. 3, Л., 1978.
- Пушкин А. С.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10-ти томах, т. 6, Л., 1978.
- Пушкин А. С.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10-ти томах, т. 8, Л., 1978.
- Алексеев М. П. Пушкин, Л., 1972.
- Храпченко М. Б.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творчество,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 человек. М., 1976.
- 홍기순. 「뿌쉬킨 작품의 영상화 연구」. 『노어노문학』 19권 1호. 2007.

❖ ABSTRACT

Kalmyk's Space in Pushkin's Literature

Kwon, Ki Bae

This work studies how the Kalmyk nationality, a symbol of Mongolian-Asians, appears in Russian literature especially in Pushkin's literary works. The European-Asian problem is a big issue that crosses time even in a very enormous and multiracial country such as Russia, where various people have their own traditions and way of life. Especially a minority race, which succeeds from Mongolian blood, with their heart in Russia and in Russian's territory, where they have lived, have been a matter of interest for the Russian writers. Expressly the Kalmyk Republic, situated near Caucasus, in the capacity as symbolic literary material, was a huge attraction for Pushkin, who was so interested in literary places not only in big cities like Moscow or Petersburg, but in Russian's provincial literary worlds too. Pushkin, having visited the Kalmyk praries himself, introduces the Kalmyks, the Kalmyks, the descendent of Mongolian as a minoring race handing down the Oriental culture of in Russia. Pushkin's view on the Kalmyks tends to be fragmentary and deficient, therefore making it guilt difficult to define their identity precise. However, Pushkin successfully introduces Kalmyk's existence to Russian people, who rarely know about the Kalmyks. Pushkin, in his own literary works of various genres (i.e. "Story about Pugachev," "A Captain's Daughter," "Army Trip to Arzrum in 1829" and the poem "To a Kalmyk Woman"), portrays Kalmyk people - people keeping to their own culture, way of life, and religion (Shamanism and Buddhism), despite the fact that they had lived in a Russian territory for more than 2 centuries as peace-loving, simple, genuine and hospitable people - much like a naive woman with "a wild charm."

Key Words

Kalmyk, Pushkin, Space, Orient, Russian Literature

논문접수일: 2008. 10. 23.

심사완료일: 2008. 11. 20.

게재확정일: 2008. 12. 10.